

제2 언어가 한국어인 베트남 성인의 한글 해호화 초기과정에서의 자소-음소 대응

윤혜경* 박혜원** 권오식***

인제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본 연구는 제2 언어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의 문자체계인 한글을 학습하는 외국인 성인의 한글 해호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글 자소-음소 대응과정에 영향을 주는 음운인식 수준을 평가하고 이로부터 한글 자소-음소 대응과정 즉 음소인식과 자소와의 대응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음운인식과제와 자소대치/탈락과제를 사용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성인 베트남 피험자들은 비록 한국어를 사용한 음운지각과제이지만 음절인식은 물론 음소인식(68%)에서도 비교적 높은 정반응을 보였다. 둘째,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음절인식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음소인식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초성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자소대치과제에서는 전체적으로 77%-82%의 수행을 보였는데, 받침글자에서는 자소위치에 따른 자소-음소 대응 차이가 없었으나(74%-79%) 민글자에서는 종성대치(89%)가 초성과 중성에서의 수행(78-80%)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이 외국인 성인의 음운인식능력과 한글 해호화 과정에서의 자소-음소대응과정과 연관 지어 논의되었다.

주요어: 한글 해호화, 성인 베트남인, 음운인식, 자소-음소 대응관계, 자소대치과제

인터넷과 같은 통신매체의 발달, 교통발달, 그리고 경제 특구 개설과 같은 국가개방의 추세는 여러

* 교신저자.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복지연구소 연구교수. E-mail : hyekyoon@hanmail.net

**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전공 교수

*** 인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 논문은 첫 번째 연구자의 2010년 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KRF-2010-327-H00027).

나라의 사람들이 모국어를 포함하여 적어도 2개 이상의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 이중언어자(bilingual)를 양산하게 한다. 한국 사회에도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아동,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등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이중언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2011) 출입국 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1년 2월 말 126만 명 정도이며 국제결혼 부부는 해마다 급증해 2008년에는 전체 혼인의 11.1%를 넘어설 만큼 일반화 되었다(통계청, 2009).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는 2009년 6월 현재 12만 6천 155명(남성, 1만 5천 323명, 여성, 11만 832명)으로, 그 출신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의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한국 사회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외국인, 외국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 언어소통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언어의 문제인 것이다. 언어생활은 구어생활과 문어생활로 나누어진다. 구어는 흔히 1차 언어라 하여 문어보다 먼저 발달하게 되는데 흔히 특별한 학습이나 지도 없이 적절한 언어 환경만 주어지면 연령과 더불어 비교적 저절로 발달한다. 반면에 문어는 구어의 발달보다 후에 이루어지며 가르치고 노력을 들여야 획득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중언어 연구를 보면 구어로서의 제2 언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며 제2 언어로서의 문어발달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모국어를 학습하는 경우 출생 이후 지속적으로 음성 언어의 입력이 이루어진 후 학령기를 전후하여 문자 언어를 학습하는 것과는 달리 외국어를 학습할 때에는 문자와 음성을 함께 익히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 한글 문자학습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로 20시간(하루 4시간씩 5일)을 전후하여 한글자모를 교육하고 있을 정도로 한글교육이 일주일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김윤진, 2011). 그러나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자란 중국 조선족 2세대조차 한글교재를 가지고 한국어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한글 학습이 그리 용이하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한글 해호화 과정은 한글 자음자, 모음자로 구성된 단어, 글자에서 철자와 발음을 대응시켜서 읽게 되는 과정이다. 성인 외국인 한글 phonics 과정에도 학습자의 특성과 한글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글 학습자 특성은 한글 문자 학습에 필요한 음운인식이나 글자구조인식 수준 등이 포함되며 학습과제 특성은 음소문자이지만 음절표기를 한다는 것, 또한 한글 자모의 구성이 매우 조직적인 점 등의 한글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를 제2 언어로 학습하는 성인의 한국어 문자체계인 한글 터득에 영향을 주는 음운인식 능력과 한글 해호화 특히 자모음 대응과정을 밝히 고자 한다.

지난 수년간에 이루어진 문자 읽기기술의 터득과 발달에 관여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상당한 정도의 합일점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음운인식능력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음운인식능력이 좋으면 일반적으로 읽기기술을 잘 획득하고 발달시키게 되나 이에 문제가 있으면 읽기기술의 발달이 늦거나 심하면 읽기장애가 된다는 것이다(김선옥, 조희숙, 2004; 김현자, 조중렬, 2001; 윤혜경, 권오식, 이도현 등, 1999; 장유경, 김현숙, 2003; Goswami & Bryant, 1990). 음운인식이란 모국어의 음운적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의식적인 자각으로서, 일련의 말소리가 그 하위구성요소인 단어들로 구성되며, 단어는 음절이나 음소 등으로 구성됨을 인식하여 의식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Wagner와 그의 동료들(1994)은 아동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종단적으로 연구하여 음운적 능력이 단어읽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김선옥과 조희숙(2004)은 5세 아동의 음운인식과 단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간의 상관성이 있으며 읽기총점의 40%의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단어재인식과 음운인식 간의 상관관계는 .888로 어휘력(.448)이나 지능(.3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증렬 등(2004)의 연구는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 음운인식능력 특히 음소인식능력이 모국어의 읽기뿐 아니라 영어읽기, 영어어휘력의 발달에도 관계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최근 이경희(2012)는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짧고 빠른 청각정보의 처리능력(청각시간처리능력)이 음운인식능력과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치원 아동대상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음운인식능력이 초기 문자읽기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며 고학년에서는 외국어 학습과도 관련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음운인식은 여러 상이한 수준에서 측정될 수 있다. 음운인식능력의 발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아동들이 큰 단위(예를 들어, 음절)를 인식하다가 점차로 보다 작은 하위단위(예를 들어, 음소)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Liberman, Shankweiler, Fischer, 및 Carter(1974)는 4, 5, 6세 아동을 대상으로 단어분절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4세 아동 중 음소분절이 가능한 아동은 없었으나 50% 아동이 음절분절을 하였다. 5세 아동은 17%가 음소분절이 가능하였다. 6세 아동의 경우는 70%가 음소분절, 90%의 아동이 음절분절을 하였다. 그외의 많은 연구들(Calfee, Chapman, 및 Venezky, 1972; Treiman, Baron, 1981; Fox, Routh, 1984)들도 음절에 대한 인식능력은 4, 5세 정도가 되면 갖추게 되지만 음소인식은 6세나 7세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4세, 5세, 그리고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음운인식능력의 발달을 검토한 홍성인, 전세일, 배소영, 이익환(2004)의 연구결과를 보면 4세 아동에서는 음소인식과제 정반응은 8%, 음절인식과제 정반응 34%, 단어인식과제 정반응은 50%였으며 5세에서는 음소, 음절 단어인식이 각각 13%, 67%, 75%였다. 6세 경우에는 단어, 음절인식은 95%이상이며 음소인식은 51%의 정반응을 보였다. 이숙희(2007)의 연구에서는 쓰이지 않는 글자읽기 과제에서 5세 아동이 50%의 정반응을 보여 5세경에 음소인식이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5세 경 단어인식은 물론 음절인식능력을 갖추며 음소인식이 서서히 가능해 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글은 한국어라는 청각적인 말을 시각적인 글로 바꾸어 주는 문자다(이익섭, 1992). 문자가 말소리의 의미나 그 발음을 표상하게 되는데, 전자를 표의표기 후자를 표음표기라 한다. 문자에 따라서 표음이나 표의표기 중 어느 한 쪽을 취하게 되는데, 영어나 한글은 대표적인 표음문자이고 한자는 표의문자이다. 표음문자의 경우 문자와 소리 사이의 대응은 여러 수준에서 가능하다. 자소와 음소 간의 대응, 글자와 음절 간의 대응 등 여러 수준에서 가능하지만 한글과 같은 음소문자의 경우는 자소-음소 대응관계를 터득하는 것이 읽기 능력 획득의 관건이다. 비록 자소-음소 대응관계를 획득하는 것이 읽기의 목표이지만 자소와 음소를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글자와 음절이 해체되어 그 구성요소인 자소와 음소가 인식되어야 한다.

한글은 음소문자다. 따라서 한글 터득이란 한글 음소에 해당하는 시각적 형태인 자소를 대응시키는 자소-음소대응 규칙을 터득하는 것이다. 그래야 한글 자모음자로 구성된 어떠한 글자 심지어는 쓰이지 않는 글자(예: 꺾, 찹 등)도 읽을 수 있게 되

는 글자읽기의 일반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소와 음소를 대응 관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글자, 음절이 해체되어 그 구성요소인 자소와 음소가 인식되어야 한다. 어린 아이에게도 글자는 시각적이므로 해체하여 자소를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음절을 해체해서 음소를 인식하는 것은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동의 음운인식 발달 수준에 맞추어 한글 학습초기에는 단어를 전체 읽기단위로 하는 단어읽기, 음성적인 단어에서 음절이 분리 인식되면 가, 나, 다 등의 글자를 읽기단위로 하는 글자읽기 학습이 가능한 것이다. 외국인 성인이나 문맹인 한국인 성인에게 자소-음소 대응관계를 가르치려면 우선 음소지각이나 인식을 가정해야 한다. 흔히 음운인식능력의 발달에서 6, 7세 이후에는 음소인식능력이 가능하므로 외국인 성인의 한글 읽기 학습은 용이할 것으로 여기므로 이에 대한 연구보다는 이중언어를 학습하는데 학습자의 모국어의 음운적 특성이 한국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이유라, 2008; 이종진, 2012). 그러나 외국인 성인이 자신의 모국어에서는 음소인식이 가능하지만 낮은 말소리인 한국어에 대한 분절은 어느 정도인지, 음절, 음소인식이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자소-음소 대응관계의 터득과정은 일음절의 초, 중, 종성의 자모 중 어느 부분이 먼저 음소와 대응되는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세 가지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글자에서 초성, 중성, 그리고 종성의 자소가 동시에 해체되어 각각 음소와 대응되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초성과 중성은 항상 통합되어 그 자체가 받침 없는 이성음절인 개음절이 되고 여기에 종성 덧붙여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초성+중성'과 종성으로 먼저 분해되고 이에 각각 소리가 대응된다. 세 번째는 글자에서 가

장 앞부분인 초성이 가장 두드러져 이에 소리가 대응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각 아동마다 자기 나름대로 위의 세 과정 중의 어느 하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희경(1997), 윤희경, 권오식(1999), 윤희경, 박혜원(2007)은 자소대치/탈락과제에서 대치, 탈락되어야 하는 초성, 중성, 종성의 자소 위치에 따른 정반응 수행을 분석하여 자소-음소 대응관계를 터득함에 있어서 초, 중, 종성의 자모 중 어느 부분이 먼저 음소와 대응되는지 살펴 보았다. 이 과제는 한 글자를 제시하여 읽어 준 다음(예, 강) 다른 글자(예, 당)가 되려면 초중종성의 어느 부분이 대치되어야 하는지(혹은 탈락해야 하는지) 묻는 과제이다. 따라서 제시된 글자의 발음과 바뀌어야 할 글자의 발음만을 비교하여 그 위치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4, 5세 한국 아동들의 자소대치/탈락과제에서 자소의 위치에 따른 정반응 수행을 보면 초성이나 중성보다 종성의 대치, 탈락의 정반응 수행이 높았으며 연구대상 중 최소연령인 4세만 아동에서도 종성대치의 정반응 수행은 50%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3성음절(C₁VC₂)이 먼저 음절체(C₁V)와 말미자음(C₂)으로 분절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희경과 권오식(1999), Yoon, Bolger, Kwon, & Perfetti(1999, 2002)의 연구에서도 한국 아동은 한글 터득과정에서 새로운 단어를 읽을 때 음절체 부분에 기초한 읽기유추가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잡'이라는 단서단어를 발음과 함께 제시하고 '잡'(음절체 유추), '샵'(각운유추), '잡'(C₁VC₂유추) 그리고 '감'(모음유추)이라는 무의미단어를 제시하고 읽어보도록 하였을 때 '잡'과 같은 음절체부분이 같은 단어를 가장 잘 읽었다. 자소대치과제나 단어읽기유추과제를 사용한 연구결과들은 한국 아동들이 문자터득의 초기에 3성음절(C₁VC₂)을 우선 음절체(C₁V)/말미자음(C₂)으로 나누어 분절하고 이에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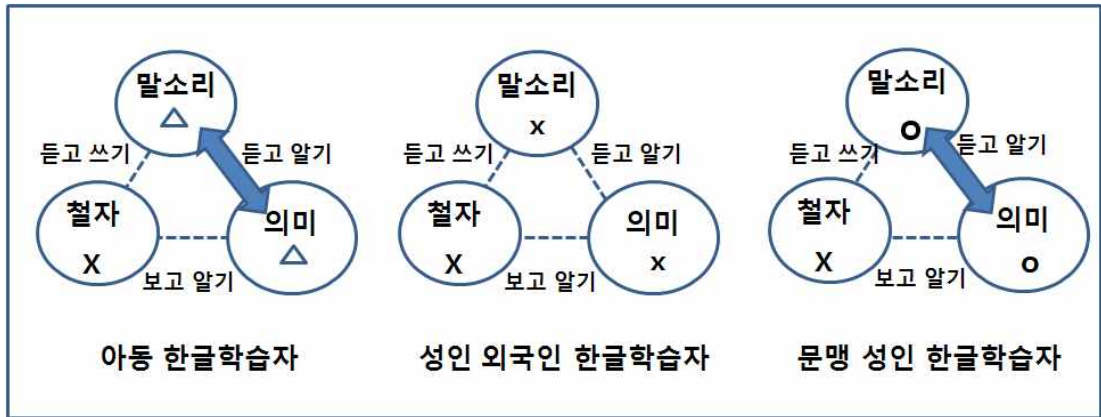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인 아동과 한국 성인 문맹인 한글 학습자, 외국인 성인 한글 학습자의 정신적 어휘집 내의 음운, 철자, 의미의 발달 상태와 연결 정도

음을 대응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또한 이러한 글자 해체양상은 우리말의 시각적 특성보다는 음운적 특성 특히 한국어의 음절의 구조가 영어와는 달리 음절체와 말미자음(C₁V+ C₂)이라는 사실(이광오, 1995; Yoon, Bolger, Kwon, & Perfetti, 2002)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의 음절구조가 음절체와 말미자음(CV+C)이며, 영어의 음절구조인 초두자음과 각운(C+VC)이라는 것은 각 문화권 아동의 초기 음운 인식 양상. 나아가서 문자읽기에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족 아동들은 한국 아동들보다 음운 인식능력, 자소-음소 대응관계 인식이 모두 1년 정도 빠르다는 것(윤혜경, 박혜원, 2005a, 윤혜경, 박혜원, 2005b)도 중국어, 한국어의 음절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조선족 아동들의 이중언어 경험이 구어, 문어처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윤혜경, 박혜원, 2005c). 따라서 모국어인 베트남인 성인의 음절지각구조가 한글 터득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과연 한국어 경험이 적은 성인 외국인들이 3성음절(C₁VC₂)을 우선 음절체(C₁V)/말미자음(C₂)으로

나누어 분절할 것인지, 초두자음(C₁)과 각운(C₂V)으로 분절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은 한국 아동 뿐 아니라 한국인 성인이라도 한글을 깨치지 못한 사람 그리고 한국어를 제2 언어로 하는 외국인 성인 등이다. 그림 1은 한국 아동 한글 학습자, 한국 성인 문맹인 한글 학습자 그리고 외국인 성인 한글 학습자의 어휘관련 세 정보인 말소리(음운), 철자 그리고 의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가상적인 정신적 어휘집(mental lexicon)내의 음운, 철자, 의미의 발달수준과 그들의 연결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을 보면 한국 한글학습자인 어린 아동은 한국어가 발달되어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알지만 단지 철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철자-발음, 철자-의미의 대응관계가 발달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맹인 한국인 성인은 한국 아동보다 말소리 인식능력도 좋고 의미도 풍부하지만 역시 철자-발음, 철자-의미의 대응관계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반면에 성인 외국인 한글학습자는 철자는 물론 말소리, 의미도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음운-철자, 음운-의미, 철자-의미의 관계를 발달시켜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

국어를 제2 언어로 배우면서 한국어의 문자체계인 한글을 학습하는 외국인 성인의 한글 해호화와 철자-발음 대응에 영향을 주는 음운인식 수준 특히 음절, 음소인식 수준을 살펴보고 한글 자소-음소 대응과정 즉 일음절의 초, 중, 종성의 자모 중 어느 부분이 먼저 음소와 대응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음운인식 중 말소리의 마디인 음절은 가장 쉽게 직감할 수 있는 발화단위로 음절인식은 생득적으로 모국어는 물론 모든 말소리를 4, 5세 경에 분리 지각 된다. 반면에 음소의 말소리의 최소단위로 모국어에서의 음소인식은 7, 8세 이후 혹은 문자학습과 더불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홍성인, 전세일, 배소영, 이익환, 2004). 성인의 모국어 경험은 음절을 특정 방식의 하위구조로 분석하게 하는 음절지각 구조를 갖게 하며 이것이 심지어는 다른 언어의 음절분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강수연, 2010; 윤혜경, 권오식, 1998; 윤혜경, 박혜원, 2005c; 한찬숙, 2003). 또한 모국어의 음절지각구조는 다른 언어의 자소-음소 대응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윤혜경, 박혜원, 2005a). 따라서 본 연구는 베트남 성인의 한국어 말소리의 음운인식능력과 한글에서의 자소-음소 대응과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 체류기간에 따라서 이러한 한글 해호화 초기 과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베트남 여성을 피험자로 선택한 이유는 2009년 현재 결혼이민자로 가장 많기 때문이었다. 음운체계, 조음방법, 음운 현상 간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는 구개음화, 비음화, 음운첨가, 음운탈락 등의 음절 연결에서 여러 음운현상이 일어나지만 베트남어에는 그와 같은 음운 현상이 그다지 많이 일어나지 않는 등의 차이가 있다(찌우티투튀, 2011), 그러나 본 연구는 단일 음절이나 음절에 상응하는 글자를 자극재료

로 사용하였으므로 두 언어간의 음운적 차이는 비교적 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 20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20-30대 여성(20대 16명, 30대 4명, 평균 26세 10개월)으로, 한국에 온 지 5년 이상(평균 5년 5개월)인 사람 11명, 5년 이내(평균 2년 7개월)인 사람 9명이었다. 이들은 천안에서 열린 2011년 한·베가족 한마음축제에 참가한 베트남 여성으로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베트남에서의 초등학교 졸업이 일반적인 학력수준임)이었다. 한국 거주기간을 5년을 기준으로 분류한 이유, 권선미(1997)에 따르면 아동이 외국에 적응하여 생활하기 위해서 3-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였고, 임수진(2008)도 5년 이상의 체류를 장기체류로 보았기 때문에, 본 성인 대상의 연구에서도 5년을 기준으로 장기거주, 단기거주로 나누어 보았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는 성인 외국인의 음운인식능력을 알아보고자 음운 동일/상이 판단과제를 사용하였고 자소-음소 대응에서 일음절의 초, 중, 종성의 자모 중 어느 부분이 먼저 음소와 대응되는지 밝히고자 자소대치/탈락과제를 사용하였다. 음운 동일/상이 판단과제는 윤혜경, 박혜원 (2005b)이 사용하였던 음운변별과제를 변형시켜 두 단어의 변별로 단순화시켰고, 자소대치/탈락과제는 윤혜경, 박혜원

(2005a)이 사용하였던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글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의 음운인식능력을 보고자 하였으므로 과제에는 모두 한국어 단어와 글자를 사용하였다.

(1) 음운 동일/상이 판단 과제

음운 동일/상이 판단과제는 음절 동일상이 판단 과제와 음소 동일상이 판단과제의 두 가지였다. 음절 동일상이 판단과제는 두 낱말을 짝지어 들려주고 첫소리(혹은 끝소리)가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는 과제이다. 예를 들어, /아빠-/ /아기/의 두 낱말을 1초 간격으로 불러주고 모두 /아/로 시작되므로 같다(0)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이 과제에서는 첫소리 동일/상이판단 문제 8문항, 끝소리 동일/상이판단 문제 8문항이 주어졌다. 음소 동일상이 판단과제는 쌍으로 제시된 하나의 음절을 듣고 첫 부분(혹은 중간, 끝부분)이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는 과제이다. 예를 들어, 초성판단과제에서는 /강-/ /걸/의 두 낱말을 1초 간격으로 들려주고 두 음절의 초성이 같은 소리로 들릴 경우 같다(0)로 표시하면 되는 것이다. 이 과제에서 초성, 중성, 종성 동일/상이판단 문제는 각각 6문항이 주어졌다. 피험자들은 두 개의 연습과제에 이어서 본 과제를 실시하였다.

(2) 자소대치/탈락 과제

자소대치/탈락과제는 일정한 카드에 쓰인 한 글자(예, 다, 달)를 보여주고 이 글자를 읽어 준 다음 (/다/, /달/으로 읽는다), 이 글자와 일부분만이 다른 글자(예: 돌 혹은 도)를 불러주고 이 다른 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시된 글자의 초성, 중성, 종성의 세 부분 중 어느 부분이 바뀌거나 탈락되어야 하는지 찾는 과제이다. 이 과제에서 읽어 준 글자의 음과 불러 준 음절의 글자의 음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불러 준 음절을 떠올리고 이를 해체하여 그 구성성분인 음소를 인식해서 비교해야 한다. 이 과제에서 글자의 복잡성에 따라서 2성음절의 민글자와 3성음절의 받침글자가 사용되었다. 실험자극에서 말소리의 복잡성에 의해서 추측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복모음이나 복자음이 들어간 글자는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한글능력이 자소대치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험자에게 제시되는 글자를 모두 읽어주고 다른 글자를 불러주고 바뀌어야 할 부분을 찾도록 함으로서 한글 읽기 능력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대치 또는 탈락되어야 할 자소의 위치에 따라서 초성대치, 중성대치, 종성대치 그리고 종성탈락의 조건으로 나누어졌다. 각 조건 당 네 문제가 주어졌다. 두 개의 연습과제에 이어서 본 과제를 실시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실험은 2011년 8월 14~15일 천안 한·베가족축제가 열린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의 한 강의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음운 동일상이판단과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자소대치과제를 실시하였다. 음운 동일 상이판단과제에서는 우선 음절동일상이 판단을 하고 이어서 음소동일상이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음절동일상이판단에서는 두 문항의 첫음절 동일상이판단 연습과제를 하면서 피험자에게 말소리를 잘 듣고(말소리를 따라 하도록 하였다) 동일/상을 판단하는 것을 확인시킨 후 8문항의 본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두 문항의 끝음절 동일상이판단 연습과제를 하고 이어서 8문항의 끝음절 동일상이판단과제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피험자들에게 음소동일상이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음소동일상이판단에서도 두 문항의

초성 동일상이판단 연습과제를 하면서 피험자에게 말소리의 첫 부분의 더 작은 소리를 잘 듣고 동일/상이를 판단하는 것임을 확인시킨 후 6문항의 본과제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두 문항의 중성 동일상이판단 연습과제를 하고 6문항의 중성 동일상이판단과제를, 두 문항의 중성 동일상이판단 연습과제를 한 후 6문항의 중성 동일상이판단과제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자소대치과제를 실시하였다. 우선 한글 글자의 초성, 중성, 종성 부분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 부분이 바뀌거나 첨가, 탈락하면 다른 글자가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피험자에게 민글자에서의 자소대치/첨가과제를 설명하고 민글자를 제시하고 대치 또는 첨가해야할 부분이 초성, 중성 혹은 종성부분인지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받침글자에서의 자소대치/첨가과제를 실시하였다. 각 과제에서는 초성대치, 중성대치, 종성대치 및 첨가/탈락의 조건은 무선적으로

제시하고 각 과제에서의 네 문제도 무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실험은 한 사람의 한국인 실험자가 실시하였고 베트남인이 실험 절차와 지시문은 베트남어로 통역하였다.

결 과

성인 베트남 피험자의 음운인식과제, 자소대치 과제에서의 수행을 분석하여 외국인의 한글 해호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한국어 말소리에서의 음운 인식 능력과 음소인식과 자소와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음운인식 과제의 수행분석

성인 베트남 피험자들의 말소리에서 음절, 음소를 인식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한 음운인식과제의 수행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성인 베트남 피험자의 음운인식능력을

표 1. 베트남 피험자의 한국거주기간과 음절, 음소의 위치에 따른 음절인식, 음소인식의 평균 (표준편차)

음운 위치	음절인식*			음소인식**			평균
	첫음절	끝음절	평균	초성 음소	중성 음소	종성 음소	
5년 이내 거주	6.00 (2.29)	5.89 (1.97)	5.94 (2.01)	3.00 (1.87)	4.44 (1.94)	4.00 (1.66)	3.81 (1.09)
5년 이상 거주	5.73 (1.35)	6.45 (1.75)	6.09 (.92)	4.64 (1.29)	4.36 (1.03)	3.82 (1.08)	4.27 (.83)
합	5.85 (1.79)	6.20 (1.82)	6.03 (1.46)	3.90 (1.74)	4.40 (1.47)	3.90 (1.33)	4.07 (.96)

*: 음절인식은 8점 만점

** : 음소인식은 6점 만점

표 2. 베트남 성인의 한국 거주기간과 제시글자 위치에 따른 자소대치 및 첨가/탈락 과제 수행의 평균(표준편차)

제시글자		민글자 대치/첨가*				받친글자 대치/탈락*				
		초성 대치	중성 대치	종성 첨가	평균	초성 대치	중성 대치	종성 대치	종성 탈락	평균
5년 이내 거주	M	2.78	3.00	3.67	3.15	3.33	3.11	3.00	3.00	3.11
	SD	(1.56)	(1.58)	(.71)	(1.14)	(1.12)	(1.05)	(1.32)	(1.12)	(1.02)
5년 이상 거주	M	3.36	3.36	3.45	3.39	3.00	2.82	3.09	3.27	3.05
	SD	(1.03)	(.81)	(.93)	(.87)	(1.55)	(1.47)	(1.38)	(1.19)	(1.28)
합계	M	3.10	3.20	3.55	3.28	3.15	2.95	3.05	3.15	3.08
	SD	(1.29)	(1.19)	(.83)	(.98)	(1.35)	(1.28)	(1.32)	(1.14)	(1.14)

* 각 4점 만점

살펴보면 음절인식은 6.03으로 75%의 정답반응을 보였으며 음소인식은 4.07로 68% 수준을 보였다. 음절인식과제에서 음절위치에 따른 첫음절 5.85, 끝음절 6.20으로 수행의 차이가 없었다, $F(1, 19)=.551, p>.05$. 음소인식과제에서도 음소위치에 따른 초성, 중성, 종성인식 수행에 차이가 없었다, $F(2, 38)=.792, p>.05$. 피험자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음절인식, 음소인식 수행을 보면 우선 5년 이상인 피험자(5.94)와 그렇지 않은 피험자(6.09)에 따른 음절인식 수행 차이가 없었다, $F(1, 18)=.047, p>.05$. 음소인식 수행에서도 5년 이내 거주자(3.84), 5년 이상거주자(4.27)간의 차이가 없으나, $F(1, 18)=1.137, p>.05$, 음소인식과 거주기간과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였다, $F(1, 18)=6.750, p<.05$. 즉 초중종성의 음소위치에 따른 수행의 차이를 보여 초성인식은 5년 이상 거주한 피험자와 5년 이내 피험자의 수행은 각각 4.64(77%), 3.00(50%)로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한 피험자는 초성음소인식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

2. 자소대치과제의 수행분석

성인 베트남 피험자들에게 민글자와 받친글자를 제시하고 실시한 자소대치, 탈락/첨가과제의 수행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민글자, 받친글자에 따른 자소대치과제에서의 수행을 보면 민글자에서 3.28로 82%의 정답반응을 보였으며 받친글자에서는 3.08로 77% 정답반응 수행을 보였다. 제시글자별 수행을 분석해 보면 우선 받친글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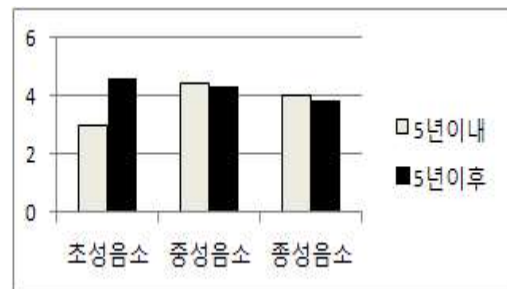


그림 2.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초중종성의 음소위치별 음소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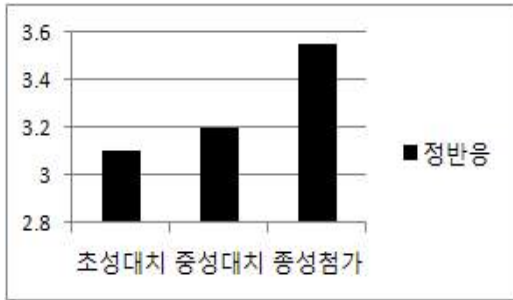


그림 3. 민글자에서 자소위치에 따른 대치/첨가 정반응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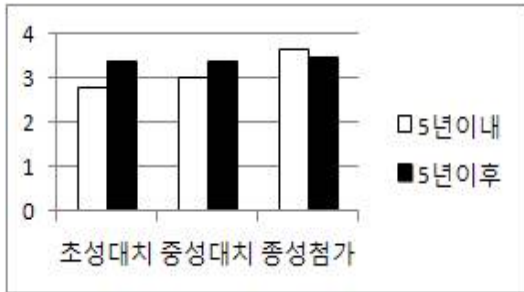


그림 4. 민글자에서 한국 거주기간과 자소위치에 따른 대치/첨가 정반응 수행

서는 자소위치($F(1, 18)=.000, p>.05$)나 거주기간($F(1,18)=1.49, p>.05$)에 따른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없었다. 민글자에서는 자소위치에 따른 주효과($F(1, 18)=4.320, p<.05$)와 거주기간과 자소위치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F(1, 18)=4.320, p<.05$), 자소위치에 따른 수행을 보면 초성대치에서 3.10, 중성대치에서 3.20 그리고 중성첨가에서 3.55였으면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F(1, 18)=4.320, p<.05$), 특히 초성대치와 중성첨가에서 수행차이($p<.05$)가 유의미하였다(그림 3). 또한 거주기간에 따른 초중중성 자소대치/탈락의 수행차이를 보면 5년 이상 거주 피험자는 자소위치에 따라 수행차이가 없었으나 5년 이내 거주 피험

자는 초성에서는 2.78, 중성에서는 3.67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 하였다, $F(1,18)=6.750, p<.05$. (그림 4).

결 과 및 논 의

한글이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한글학습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1) 외국인 한글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에서 얻은 음운지식과 한글의 음운체계 간의 상이성, (2) 모아쓰기와 같은 한글의 철자체계의 특수성 등을 들 수 있다. 성인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들의 한글 학습에 관련되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를 제2언어로 배우면서 한국어의 문자체계인 한글을 학습하는 외국인 성인의 한글 phonics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글 자소-음소 대응과정에 영향을 주는 음운인식 수준을 살펴보고 한글 자소-음소 대응과정 즉 음소인식과 자소와의 대응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울산지역에 거주하며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20-30대 베트남 여성(평균 연령 26세 10개월) 2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과제로는 피험자들의 음운인식능력을 알아보고자 음운 동일/상이 판단과제를 사용하였고 음소인식과 자소와의 대응양상을 밝히고자 자소대치/탈락과제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베트남 피험자의 음운인식능력을 보면 음절인식은 첫음절, 끝음절의 음절위치에 무관하게 75%의 정반응 수행을 보였고 음소인식도 초성, 중성, 중성의 음소위치에 무관하게 68%의 정반응 수행을 보였다. 이것은 베트남 피험자들이 비록 한국어를 사

용한 음운지각과제이지만 성인이므로 음절은 물론 음소인식 수행도 비교적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 거주기간이 이들의 음운인식능력이나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즉 음절인식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음소인식에서는 음소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한국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피험자들은 그렇지 못한 피험자들보다 중성과 종성인식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초성인식은 잘하였다. 이것은 한국 거주 5년이 되지 않은 피험자들은 중성, 종성인식 보다 초성인식이 힘들다는 것으로, 이는 삼성음절(C₁VC₂)이 초성(C₁)과 각운(VC₂)으로 분절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베트남 성인 피험자들의 자소대치과제 수행으로 본 음소의 인식과 자소와의 대응양상은 전체적으로 77%-82%의 높은 수행을 보였는데, 글자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여 받침글자에서는 자소위치에 따른 자소-음소 대응 차이가 없었으나 (74%-79%) 민글자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종성첨가에서의 수행(89%)은 초성과 중성에서의 수행(78-80%)보다 높았다. 이것은 피험자들이 삼성음절(C₁VC₂)을 음절체(C₁V)와 말미자음(C₂)으로 분절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베트남 성인의 한글 읽기 학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우선 한국어 듣기 경험이 5, 6세 한국 아동만큼 많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성인들은 음절은 물론 음소인식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한 자소-음소 대응도 77-82%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성인 외국인의 한글 해호화 학습시 한국 아동과는 달리 자소-음소 대응규칙의 터득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한글은 음소문자이므로 한글 터득의 관건은 한글 자소-음소의 대응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음소인식은 물론 음절인식도 아직 되지 않는 어린 한국 유아들은 단어를 통문자

로 읽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단어를 해체하여 글자를, 이후 글자를 해체하여 자소를 읽기단위로 하여야 하지만 성인의 경우는 비록 한국인이 아니라도 음소인식이 가능하다면 자소-음소 대응관계 터득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ㄱ->g, ㄴ->n, ㅏ->a, ㅓ->u 등의 관계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베트남인의 음절지각 구조도 음절체와 말미자음으로 분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민글자에서 종성첨가의 수행이 높다는 결과, 한국 거주기간이 적으면 초성인식 수준이 낮으며, 5년 이상이 되면 초성인식 수준이 증가한다는 결과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해서 아직 5년이 되지 않은 베트남 성인들의 한글 해호화 과정이 한국 아동의 한글 해호화 발달양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삼성음절을 음절체와 종성으로 분리 인식하고 민글자에서 초성이나 중성대치보다 종성을 첨가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은 베트남 성인들도 한글 자소-음소 대응과정에서 종성인식이 초성이나 중성보다 우선하며 종성자소와 음소 대응도 우선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가 베트남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외국인들에게 적용하는데 제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와 음운적 특성이 다른 또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 외국인 대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다 확고한 한국어를 제2 언어로 배우는 성인 외국인 대상의 한글 해호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프로그램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수연 (2010). 영어와 한국어의 음절하위구조와 전이현상: 음운인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

- 원 석사학위 논문.
- 권선미 (1997). 해외 귀국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옥, 공숙자, 조희숙 (2004). 음운처리과정이 4세와 5세 유아의 읽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 37-56.
- 김윤진 (2011). 외국인을 위한 한글 자모 교재 개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자, 조중렬 (2001). 학령 전 아동에서 음운인식, 시지각 및 한글읽기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 15-28.
- 법무부 (2009).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북.
- 법무부 (2011).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통계연보.
- 이광오 (1995). 자모대체 수행에 나타난 글자의 내부구조와 음절과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 실험 및 인지, 7(1), 57-69.
- 이경희 (2012). 청각시간처리 능력이 음운처리와 초기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숙희 (2007). 균형적 유아 읽기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효과.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익섭 (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유라 (2008).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변동 단어의 읽기 발음훈련 효과.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중진 (2012). 몽골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교육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수진 (2008) 해외 단기거주 귀국아동들의 영어 학습실태 및 영어 능력분석.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경 (1997). 아동의 한글 읽기발달에 관한 연구: 자소-음소 대응규칙의 터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혜경, 권오식, 이도현, 김선아, 김연수(1999). 국어 학습장애의 기본문제 : '해호화' 인가 '이해'인가? 인간발달연구, 6(2), 86-102.
- 윤혜경, 권오식 (1998). 영어가 모국어인 성인의 인공철자로서의 한글의 자소-음소 대응규칙의 터득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1(2), 74-87.
- 윤혜경, 박혜원 (2005a).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글 자소-음소 대응능력의 발달과 글자읽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6(4), 145-155..
- 윤혜경, 박혜원, 나은영 (2005b). 조선족 아동과 한족 아동의 음운인식능력과 모국어 읽기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회지, 29, 225-246.
- 윤혜경, 박혜원 (2005c). 조선족과 한족 대학생의 중국어, 한국어의 음절구조 지각에 대한 연구. 음성과학, 12(2), 43-56.
- 윤혜경, 박혜원, 권오식 (2008). 학습자의 모국어 (L1) 음절구조가 L2로서의 한국어문자체계인 한글 터득과정에 미치는 영향, 제 22차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중언어학회.
- 장유경, 김숙현 (2003). 유아의 한글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 87-101.
- 조중렬, 김현자 (2004). 학동기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과 한글읽기 및 영어읽기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 25-43.
- 찌우티투튀 (201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론적 대조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09). 2008년 혼인통계결과 보도자료.
- 한찬숙 (2003). 한국 아동의 음운인식과 영어 단어 해독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인, 전세일, 배소영, 이익환 (2004). 한국 아동

- 의 음운인식 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49-63.
- Calfee, R. C., Chapman, R. S., & Venzeky, R. L. (1972). How a children needs to think to learn to read. In L. W. Gregg (Eds.), *Cognition in learning and memory*. New York: Wiley.
- Fox, B., & Routh, D. K. (1984). Phonemic analysis and snthesis as word-attack skill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1059-1064.
- Goswami, U., & Bryant, P.(1990). *Phonological skills and learning to read*. Hillsdale, NJ : Erlbaum.
- Liberman, I. Y., Shankweiler, D., Fischer, F. W., & Carter, B. (1974). Explicit syllable and phoneme segmentation in the young child.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8, 201-212.
- Treiman, R., & Baron, J. (1981). Segmental analysis ability: Development and relation to reading ability. In G. E. MacKinnon & T. G. Waller (Eds.), *Reading research: Advances in theory and practice*, Vol.3. New York Academic Press.
- Wagner, R. K., Torgeson, J. K., & Rashotte, C. (1994). Development of reading-related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ies: New evidence of directional causality from a latent variable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73-87.
- Yoon, H. K, Bolger, D., Kwon, O. S., & Perfetti, C. A.(2002). Subsyllabic Unit in Reading : A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English. In L. Verhoeven, C, Elbro & P, Reitma (Eds.), *Precursors of Functional Literac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 Yoon, H. K, Bolger, D., Kwon, O. S., & Perfetti, C. A.(1999). The effect of language and script on the reading. Preceeding presented at the 2nd European Graduate School on Literacy Acquisition: Precursors of Functional Literacy, The University of Nijmegen, Netherlands.

1차 원고 접수: 2012. 10. 15.

수정 원고 접수: 2012. 11. 25.

최종 게재 결정: 2012. 11. 26.

The acquisition process of grapheme-phoneme correspondence relations in the Hangeul phonics of Vietnamese adults who are use Korean as a second language

Hye Kyung Yoon Hyewon Choi Park Oh-Seek kwon
Inje University Ulsan University Inje University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analyze the level of phonological awareness and the acquisition process of grapheme-phoneme correspondence relations in Hangeul phonics as used by Vietnamese adults who speak Korean as a second language. Phonological awareness tasks and grapheme substitution/addition tasks were administered to 20 Vietnamese women who had been married to Korean men in Ulsan for 1 to 6 years. Analyses revealed that these Vietnamese-Korean bilinguals showed a 75% correct rate of syllable awareness regardless of the place of the syllable and a 68% correct rate of phoneme awareness, regardless of the placement of phoneme. However, phonemic awareness for syllables in different places was varied, depending on the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The performance with regard to the first phoneme awareness was lower than that for the middle or final phoneme awareness in the subjects who had lived less than 5 years in Korea. Finally, the performance rate for the grapheme substitution/addition task was 77% to 82%; the performance for the final grapheme was likewise higher than that of the first or middle grapheme.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Hangeul phonics and the acquisition process of Hangeul grapheme-phoneme correspondence relations.

Key words: Hangeul phonics, adult Vietnamese, phonological awareness, grapheme-phoneme correspondence relation, grapheme-substitution task